

新羅 惠恭王代(765~780)의 國內外情勢와 對日外交

김 선 숙*

I. 머리말	IV. 맺음말
II. 760년대 중반 이후의 東北亞情勢와 國際關係	<참고문헌>
III. 新羅 政治勢力의 動向과 對日外交	<국문요약>

I. 머리말

新羅 惠恭王代는 강력한 왕권을 추진하던 경덕왕의 뒤를 이어서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혜공왕이 거의 10년 동안 母后의 섭정을 통해 왕권을 유지하다가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親政을 펼치던 시기였다. 혜공왕의 권한은 집권 초기 太后와 그의 인척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틈새를 이용한 貴戚들의 반란이 왕의 재위 16년 동안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빈번해지면서 신라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다.

또한 신라 혜공왕대는 唐 내에서 일어난 소위 ‘安史의 亂’이 끝난 후, 그 여파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唐代 초기에 정복되었던 迴紇이나 吐蕃 등이 당 내의 혼란을 틈타 더욱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등 唐朝를 계속 압박하였다. 당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고대사 전공(1997-sun@hanmail.net).

은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안팎으로 곤경에 처하였고 동북지역에까지 손을 뻗칠 여력이 없게 되었다.

이무렵 신라의 북쪽에 위치한 발해가 당을 압박해오는 등 또 하나의 강대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발해와의 우호관계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은 그 방안의 하나로서 발해의 국가적 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발해 역시 대내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당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나갔다.

발해와 당 사이의 관계는 8세기 중반에 일어난 안사의 난 이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해와 당 사이의 관계변화는 두 나라 사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라와 발해 및 신라·발해와 일본 사이의 외교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혜공왕대에는 신라가 일본에 세차레 정도, 일본이 신라에 한차레 정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양국간 교섭이 중단없이 계속되긴 했으나 사신왕래 기간이나 빈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소원하였다. 이는 동북아정세와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신라내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II. 760년대 중반 이후의 東北亞情勢와 國際關係

1. 唐使 韓朝彩의 신라입국과 그 배경

760년대 중반 이후의 동북아정세는 755년부터 763년에 걸쳐 진행된 안사의 난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즉, 8세기 중엽부터 불붙기 시작한 안사의 난으로 인해 당조정의 힘이 미약해지자 이 기회를 노린 迴紇과 吐蕃 등의 對唐侵攻은 더욱 거세졌고¹⁾ 난이 끝난 뒤에도 이같은 당내의 혼란은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藩鎮 또는 方鎮 등으로 불리며 軍事와 民政을 겸한 강대한 지방분권적 세력이 당의 중앙정부와 대립·발호하고 있었다.²⁾

1) 『舊唐書』代宗本紀 永泰 元年(765) 및 同書 列傳 迴紇, 吐蕃(上).

2) 이성시(저)/김창석(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청년사, 1999), 193쪽, 최재수, 「장보고에 대한

발해 역시 요동을 점령하여 州를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체제를 영위하고 있었다.3) 그러나 발해는 730년대에 또 하나의 강대세력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돌궐이 거란과 해 등을 정벌하기 위해 발해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 무왕이 이를 거절하면서 당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4) 이후 737년 무렵에 발해의 세번째 왕인 文王(737~793) 大欽茂가 집권했을 때 당이 발빠르게 內(常)侍 段守簡을 발해에 파견하여 문왕을 渤海郡王에 책봉한 데 이어 발해에 들어간 唐使로 하여금 발해의 사신과 함께 入朝케 하면서5)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760년대 이후 발해는 侯希逸에 이어 고구려유민으로서 당의 平盧淄青節度觀察使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에 오른 李正己가 산둥반도 전역을 점유하면서 당의 중앙 정부에 항거하며 반독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정기의 번진세력과 무역을 하는 등 이들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함으로써6) 당조정과 번진 세력인 이정기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발해 문왕은 大曆 연간(766~779)에 들어와서 당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였다.7) 이 시기 발해는 당과의 교류를 통해 무역의 이익은 물론이고 문화의 수입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발해는 새로 정복한 지역에 대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등 영토 확장과 국력강화에 힘을 기울였다.8) 이러한 발해의 强盛에 대해 당에서도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계속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었다.9)

그런데 764년 무렵 당의 사신 韓朝彩가 발해를 거쳐 신라에 입국한 일이 있었다. 唐使 韓朝彩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띠고 발해와 신라를 왕래했는지는 알

기록과 장보고의 제당활동과 해상지배권 장악의 배경, 『장보고연구』, 2(1999), 20쪽.

3) 日野開三郎, 『安史の亂による唐の東北政策の後退と渤海の小高句麗國占領』,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卷(1984), 327쪽.
 4) 『東北通史』, “(上略) 神榮曾服屬突厥 至武藝時尙未之改 開元五年復營州 奚契丹皆內屬 是時渤海已受唐封 而未與突厥絕 至是突厥結渤海 欲攻兩蕃 武藝既拒其請 又表上之 是則已脫去突厥之羈絆矣 渤海自斯役後 則始終親附於唐 朝貢不絕”
 5) 『舊唐書』 渤海靺鞨 (開元)25年條.
 6) 『舊唐書』 列傳 李正己; 김문경, 『당 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일신사, 1986).
 7) 『舊唐書』 渤海靺鞨 (貞元)14年 및 (開元)25年條.
 8) 송기호, 『발해 文王代の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한국고대사학회, 1993).
 9) 『舊唐書』 渤海靺鞨.

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당에서는 762년에 발해 문왕을 郡王에서 國王으로 승격시킨 일이 있었다. 또한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條에 의하면 그는 內常侍라는 관직을 갖고 있었고 내상시는 발해왕의 책립을 위해 당이 특별히 파견한 사신의 관직이었다.

따라서 764년경 발해에 파견된 唐使 韓朝彩는 762년에 있었던 당의 발해왕 책봉사실을 알리기 위한 特使로 추정된다.10) 그런데 그는 당의 內常侍로서 자신의 임무를 마친 뒤 곧장 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함께 발해에 머물다가 먼저 떠난 일본의 遣唐留學僧 戒融이 무사히 귀국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신라에 입조하였다.11) 여기에서 당사 韓朝彩가 발해를 거쳐 신라에 입국한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변경·외국정보의 간첩으로서 그가 일본승 戒融의 일을 핑계로 삼아 안사의 난 이후의 동아시아 동정을 살펴보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었다는 견해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12) 물론 안사의 난 이후에 전개된 불안한 국제정세로 볼 때 당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여러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여 정보수집 목적의 첩보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韓朝彩가 정보수집 차원의 간첩활동을 벌이기 위해 발해와 신라를 경유하려 했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이들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직접 방문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韓朝彩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단지 신라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만을 일본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다. 따라서 韓朝彩의 발해와 신라 방문이 당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동정과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학계에서는 신라와 발해의 정치적 관계를 대개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13) 그러나 신라와 발해를 경유한 唐使 韓朝彩의 여정으로

10) 당이 代宗의 즉위를 계기로 亂의 종결을 신라와 발해 두 나라에 알리고 우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라와 발해에 特使를 파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丸山裕美子, 『唐國勅使韓朝彩についての覺書』, 『續日本紀研究』, 290(1994); 平澤加奈子, 『八世紀後半の日羅關係: 寶龜十年新羅使を中心に』, 『白山史學』, 42(2006), 50쪽에서 재인용.
 11)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 7月條.
 12) 赤羽目 匡有, 『8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と渤海との通交關係』, 『古代文化』, 56-5(2004), 38쪽.
 13) 발해의 대외관계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김은국, 『발해의 대외관계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22(2003) 참조.

본다면 760년대를 전후로 하여 신라와 발해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¹⁴⁾ 왜냐하면 그가 신라로 들어갈 무렵 이미 신라와 발해 사이에는 발해의 柵城府에서 신라의 井泉(泉井)郡에 이르는 39驛의 新羅道¹⁵⁾와 신라의 정천군을 기점으로 高城郡 및 王京 경주에 이르는 교통로인 北海通(溟州街道)이 양국의 상설교통로로서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⁶⁾

물론 신라와 발해 사이에 개설된 교통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이었거나 빈번한 교류의 증거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¹⁷⁾ 그러나 신라와 발해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계속 적대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¹⁸⁾ 발해에는 엄연히 日本道와 함께 新羅道 등의 5道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발해와 일본의 관계처럼 신라와의 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비록 사료상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길을 통해 양국의 商人이나 일반 백성들, 심지어 사신들까지 왕래하면서 인적 물적교류가 가능했을 것이고,²⁰⁾ 발해로부터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정비를 상

정해 볼 수 있다. 韓朝彩는 바로 이 동해안 길을 통해 신라의 경주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²¹⁾

그렇다면 이같은 교통로가 두 나라 사이에 과연 언제 개설된 것일까.²²⁾ 경덕왕은 756년에 견당사를 파견한 적이 있었다. 이는 755년(경덕왕 14)에 발생한 安祿山の 난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현종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²³⁾ 경덕왕은 즉위 초 까지만해도 당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현종은 찬신대부 위요를 신라에 보내 前王에 대한 조의와 함께 경덕왕의 책립을 시행케 할 정도로 신라에 대한 우의와 배려를 보여주었다.²⁴⁾ 따라서 756년의 신라견당사는 아마도 경덕왕이 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견한 특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무렵 당양조는 내란의 여파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경덕왕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라사절단을 당에 파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唐内の 혼란으로 인해 현종이 蜀(四川省) 지역으로 피신하는 등 동북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신라조정에서도 唐 내부의 사정을 직접 탐색하고 자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758년에 귀국한 遣虜海使 小野朝臣田守가 일본조정에 당에서 일어난 난의 소식을 상세히 전하자 이를 우려한 일본조정에서 대재부에 명을 내려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²⁵⁾ 또한 764년 7월에 金才伯이 渡日했을 때 일본조정에서 당시 신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엄히 경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자 金才伯이 ‘唐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점에서 알 수 있다.²⁶⁾

14) 赤羽目 匡有는 宦官인 唐使 韓朝彩가 당시 唐에서 安史의 亂과 같은 소요 등으로 인해 혼란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해를 거쳐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신라와 발해 사이에 우호적이고 빈번한 교섭을 상정하기란 힘들다는 입장이다. 赤羽目 匡有, 앞의 논문(2004), 36쪽.

15) 『三國史記』 雜志 地理,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取之 景德王改名 築炭項關門 今湧州 領縣三”; 同書 雜志 地理, “賈耽古今郡國志云 渤海國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新唐書』 渤海傳, “龍京東南瀕海日本道也 南海新羅道也 鴨綠朝貢道也 長嶺營州道也 扶餘契丹道也.”

16) 신라에는 소위 通과 驛 등의 교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 『三國史記』 三國有名未詳地分條에서 전하고 있는 通名은 모두 5개로 北海通·鹽池通·東海通·海南通·北條通 등이며 驛名도 모두 5개로 乾門驛·埤門驛·坎門驛·艮門驛·兌門驛 등이 있다. 특히 5通은 5道 내지 5街道의 의미이며 왕도로부터 각 지역, 즉 九州의 州治와 五小京에 통하는 중요한 군사·행정 도로로 파악되기도 한다. 井上秀雄, 『五通と五門驛』, 『新羅史基礎研究』(東出版社, 1974), 400쪽.

17) 李鏞賢은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평화적인 교섭보다는 시종일관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발해의 신라도를 대신라방위간선도로로서, 신라의 북해통은 대발해방위시설로서 간주하였다. 李鏞賢, 『統一新羅의傳達體系と北海通』, 『朝鮮學報』, 171(1999).

18) 宋基豪,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발해와 신라」, 『한국사시민강좌(5)』(일조각, 1989), 48쪽; 金恩國, 「新羅道를 통해 본 渤海와 新羅 관계」, 『白山學報』, 52(1999), 739-742쪽.

19) 赤羽目 匡有는 신라와 발해간에 개설된 교통로를 통해 두 나라의 교류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양국간에 우호적 관계를 나타내준다고거나 빈번한 교류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赤羽目 匡有, 앞의 논문(2004), 38-40쪽.

20) 한규철은 이 39개의 역을 주로 이용한 대상이 경제와 문화교류의 주인공인 민간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을 중심으로 신라와 발해 사이에 정치 군사적 긴장이 존재했다고 하여 양국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신서원, 1994), 11쪽, 173쪽.

21) 송기호, 앞의 논문(1993), 75쪽; 김은국, 앞의 논문(1999), 742쪽; 赤羽目 匡有, 앞의 논문(2004), 38쪽.

22) 송기호는 721년에서 757년 사이에, 특히 대흥무 문왕 전기에 양국간 신라도라는 교통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송기호, 앞의 논문(1993), 74-75쪽.

23)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15年(756) 春2月條.

24)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2年 春正月條.

25)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12月條.

26)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秋7月條. 한편 당나라에서는 755년(唐 玄宗 天寶 14)부터 安祿山(安史)의 亂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수도가 토번의 침략을 당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신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인 756년의 견당사를 계기로 安祿山の 난에 대해 그 여파와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 환으로써 신라에서는 발해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실제로 경덕왕대에 신라에서는 발해와 국경을 접한 井泉郡에 炭項關門을 쌓은 일이 있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축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安祿山の 난이 일어난 시점과 가까운 758년(경덕왕 17)부터 축성이 시작되었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용으로 설치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발해에서도 신라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시점인 760년에 신라도를 개설한 일이 있었다.²⁷⁾ 신라도의 설치가 신라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무렵 신라와 발해의 교섭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해 역시 安祿山の 난 이후 전개된 불안한 동북아정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라와 발해 두나라 사이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764년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발해의 신라도로부터 신라의 정천군에 이르는 지역까지 39개의 역이 개설되어 평상시에는 이 역들이 두 나라간 교통로 내지 교역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²⁸⁾ 唐使 韓朝彩는 바로 이러한 노선을 통해서 신라에 들어왔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의 사신 韓朝彩가 신라에 입국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만일 그가 일본승 戒融의 소식만을 접하기 위해 신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²⁹⁾ 藤原河清의 경우처럼 당시 발해와 당,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로 볼 때 韓朝彩는 굳이 신라에 들어갈 필요없이 발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가 763년에 종결된 亂의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면 그는 신라와 발해 뿐만 아니라 일본조정에게도 알렸을 것이다. 그런데 『續日本紀』에 의하는 한 韓朝彩의 부탁으로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 김재백은 일본에 있는 戒融의 소식을 물었음

에 처해 있었다. 『舊唐書』 玄宗本紀 下; 同書 肅宗本紀; 同書 代宗本紀

27) 조이욱, 『統一新羅의 北方進出研究』(서경문화사, 2001), 181쪽.

28) 『渤海國志長篇』 叢考 渤海後志, “渤海盛時 與日本通使交易往來頻繁 南與新羅連疆 道路通利 豈無信使往來 且渤海交通五道 以南海府爲新羅道 尤有兩國交通之明證”; 조이욱, 위의 책(2001), 179-181쪽.

29) 上田雄, 『渤海使の研究』(明石書店, 2002), 314쪽.

뿐 일본조정에게 난의 종식에 대한 어떠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韓朝彩의 新羅入國과 김재백의 渡日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발해 문왕대(737~792)에는 발해와 일본의 사신왕래가 신라에 비해 빈번한 편이었다. 당시 일본은 唐과의 交通을 위해 신라가 아닌 발해를 주목하고 있었다.³⁰⁾ 758년 9월에 이보다 앞서 발해에 간 일본의 遣渤海使 小野朝臣田守가 귀국했는데, 小野朝臣田守 등의 渤海入國을 계기로 渤海使 揚承慶 등 23인이 함께 도착하였고, 이때 양승경 등이 日本使節의 無事歸還과 함께 弔問使로서 성무천황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본조정에게 보내는 발해왕의 信物 및 傳言 등을 전달한 일이 있었다.³¹⁾

일본은 小野朝臣田守 등을 발해에 파견하여 천황의 죽음을 알리고 당의 소식도 접하고자 했다. 이때 일본천황은 발해왕에게 758년경 발해로부터 당국에 들어간 일본의 견당사 藤原河清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³²⁾ 이후 759년 10월에 발해사 高南申이 藤原河清을 맞이하러 간 遣渤海使 內藏忌寸全成과 함께 渡日하여 당에 머물던 藤原河清의 表文을 가져왔다.³³⁾ 761년에 8월에는 高元度가 당에서 귀국하였는데 그는 遣唐使 藤原河清을 맞이하고자 발해의 견당사를 따라 渤海道를 통해 唐國에 들어갈 수 있었다.³⁴⁾

발해와 일본의 사신왕래는 특히 일본이 신라에 대한 침략을 공언할 무렵부터³⁵⁾ 더욱 각별하였다. 이같은 일본측의 움직임은 당 내부의 불안한 정세 및 발해와의 親交 등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安史의 亂은 76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 신라와 당조정에서는 발해와의 왕래를 통해 신라 침략의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와 당조정에서는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唐使 韓朝彩가 애

30) 박석순,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경인문화사, 2002), 277쪽.

31)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및 同書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條

32)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2月條.

33)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10月 및 4年 春 正月條.

34) 『續日本紀』 淳仁天皇 天平寶字 5年 8月條.

35) 일본학계에서는 신라를 ‘조공’하는 ‘蕃國’으로 위치 지으려는 일본지배층의 의식과 일본과 대등하려고 하는 신라지배층의 의식 사이에 모순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신라정토계획과 같은 극단적인 상태를 일으킨 것이고 그 후 계속되는 신라사에 대한 견책과 방환조치 등도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2003), 75쪽.

써 발해를 경유하여 신라로 들어간 배경에는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당조정이 日本僧 戒融의 안부를 빌미로 일본조정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던 측면이 강하다. 그 결과 일본이 계획했던 신라침략은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 악화와 더불어 신라, 발해, 당 사이에 진행된 평화적인 교섭이 맞물리면서 일본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³⁶⁾

2. 770년대 이후 발해와 일본의 관계

76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정세가 안정된 뒤 770년대로 접어들면서 발해와 일본의 우호적 관계에도 변화가 엿보인다.³⁷⁾ 771년에 渡日한 발해사 壹萬福이 일본조정에 表文을 전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측은 발해의 表文에 대해 727년에 문왕의 先考인 무왕이 사신을 보내어 비로소 두 나라가 통교를 갖게 되었다.

이후 문왕이 遺風을 계승하여 前王의 遺業을 이어서 사신을 보내왔으나 771년에 발해사신이 가져온 글에는 낱짜 아래에 관품과 성명을 쓰지 않고 글의 말미에 천손임을 참칭하는 등 이전과 다른 법식과 칭호를 따르고 있다는 점, 아울러 高氏의 때에는 병란이 그치지 않아 조정의 위엄을 빌리기 위하여 그쪽에서 형제를 칭하였는데 이제 大氏는 일찍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연고로 함부로 외속과 생질이라 칭하는데 예를 잃은 것이라고 비난하면서³⁸⁾ 일만복에게 표문을 고쳐짓고 사죄토록 하였다.

게다가 771년 6월에 渡日한 발해사 일만복 일행은 총 32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배 17척에 나뉘 타고 일본에 올 정도로 대규모의 인원이었다.³⁹⁾ 이러한 대규모의 발해사절단은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발해조정이 일만복

일행을 파견한 목적에 대해서는 773년 6월에 渡日한 渤海使 烏須弗이 能登國에 도착하여 일본의 使人에게 전한 말에서 알 수 있다. 烏須弗에 의하면 그 이전 발해에 체재하면서 音聲을 배우고 돌아갔던 일본사 內雄 등이 10년이 지나도록 안부를 알리지 않자 발해조정에서 일만복을 일본에 보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일만복이 귀국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일본에 온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따라서 일만복 일행은 발해에 체재하다 이보다 앞서 귀국한 일본의 音聲留學生 內雄(高內弓)이란 인물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일본에 온 것임을 알 수 있다.⁴¹⁾

그런데 발해조정이 단지 발해에 체재했던 일본사 內雄의 안부만을 묻기 위해 일만복을 포함한 3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일만복 일행이 일본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다가 폭풍우를 만나 간신히 죽음을 면하여 일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듯이⁴²⁾ 당시 발해와 일본의 사신왕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야 할 정도의 힘든 여정이었다.

따라서 당시 발해와 일본의 관계가 비록 우호적이었다고 해도 발해사 일만복 일행이 목숨을 걸고 渡日해야만 할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조정이 이들을 常陸國에 안치하고 물건을 공급한 점⁴³⁾이나 발해사 일만복 이하 40인만을 조회에 참석시킨 점⁴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발해측이 內雄의 안부를 내세운 공식사절을 보냄으로써 일본과의 교역을 기대하고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발해사절단에는 발해의 외교담당 사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발해측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인들까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⁴⁵⁾

40)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4年(773) 6月條

41) 구난희는 그보다 앞서 渡日한 신라사 김초정 일행이 대일교역을 달성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발해측의 신라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의 대일교역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난희, 「8세기 후반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10(1999), 34-37쪽.

42)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3年 9月條, “送渤海客使武生鳥守等 解纜入海 忽遭暴風 漂着能登國 客主僅得免死 便於福良津安置.”

43)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2年(771) 6月條

44)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2年(771) 10月條

45) 鈴木靖民 역시 중개자적인 상인이 동행했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을 발해 내 부족 중 首長層에 있는 자들로서 파악하였다. 上田正昭(篇), 「東北アジアのなかの渤海の國家と交流」, 『古代日本と渤海』(大巧社, 2005), 58쪽. 이는 779년에 押領 高洋(彌) 등 발해 및 철리의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모두 359인으로 이때 渡日한 발해사절단의 수가 매우 많았던 사실(『續日本紀』 光仁

36)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1(1924); 上田雄, 앞의 책(2002), 306쪽.

37) 일본학계에서는 발해와 일본의 관계가 762년을 기점으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경제적인 관계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는 일관해서 경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해석한다. 이성시(지)/김창석(역), 앞의 책(1999), 150-151쪽;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2001), 19-28쪽.

38)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3年(772) 2月條.

39)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2年 6月條

이처럼 발해사 일만복이 渡日한 배경에는 안사의 난 이후 신라—발해—당 사이에 우호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발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발해의 정치적 발전과 경제규모의 확대가 더욱 촉진되면서 교역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진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만복 이하 발해사절단은 발해내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목적에 좀더 비중을 두고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해는 일본과의 국교수립 초기시점을 제외하고 일본에 입국할 경우 國書를 지참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본측 사료에 따르면, 일본은 753년에 발해사 慕施蒙에게 表文을 지참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으나⁴⁶⁾ 발해사는 일본에 입국하면서 表文이 아닌 奏言으로 일관하거나 中臺省牒을 제시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772년에 渡日한 발해사 일만복은 일본의 요구에 응해 表文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발해가 일본조정에 表文을 제출한 배경에는 비록 발해측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긴 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발해의 대당·대신라관계가 호전되고 문왕의 개혁정책 등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조된 발해의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오히려 그 내용이 무례하다고 비난하면서 처음으로 일만복 일행의 入京을 거부하고 그들을 되돌려 보내려 하였다.⁴⁷⁾ 773년 6월에도 渤海大使 烏須弗은 表函의 내용이 예의에 어긋나고 무례하다고 하여 일본측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일본조정은 烏須弗에게 이후 越前 加賀→能登을 취하여 들어오던 길을 금하고 筑紫道(대재부를 경유하는 길)를 따라 入朝토록 한 일이 있었다.⁴⁸⁾ 또한 779년 9월의 押領 高洋粥이 이끈 발해사절단 역시 表文을 가져오긴 했으나 그 내용이 무례하다고 하여 일본측으로부터 거부당하기까지 하였다.⁴⁹⁾

天皇 寶龜 10年 9月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때 발해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당시 철리인들은 발해에 귀속된 부족으로 이처럼 발해사절단이 772년 이후 전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대규모 화한 것은 철리부족과 같은 발해의 여러 주변부족에 대한 통합과정과 관련이 있는 등 발해의 정치과정을 반영한다. 이성시(적)·김창석(역), 앞의 책(1999), 156-159쪽.

46) 『續日本紀』 孝謙天皇 天平寶字 5年(753) 6月條.

47)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3年(772) 春正月條.

48)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4年(773) 6月條.

49)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9月條.

이러한 일본측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는 발해의 고차세적인 대일외교태도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⁵⁰⁾ 8세기 중엽과 달리 후반에 이르러 전쟁의 위기 등 동북아정세를 동요시킬 만한 직접적인 대외관계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禮의 문제가 발해와의 외교에서도 크게 강조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타당하다.⁵¹⁾

이처럼 발해와 일본 양국은 表文의 내용을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중단없이 교류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당시 발해와 일본 두 나라 모두의 관심사가 교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延喜式』 大藏省 조항에는 외국사신이 來朝하여 交易에 응하는 자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마련된 점이나⁵²⁾ 대재부에는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交關用の 재원이 비축되어 있어 외국사절이 入京할 필요 없이 대재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방환되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⁵³⁾

776년에도 발해조정에서는 史都蒙 등 187인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表文을 지참하지 않았고 정월의 賀正禮를 피하기 위해 12월 이후에 발해사가 渡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조정에서는 발해사절단을 入京시키고 극진한 대접까지 하였다.⁵⁴⁾ 그 배경에는 史都蒙 등의 발해사절단이 일본해안에 도착했을 때 폭풍을 만나 뜻하지 않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살아 남은 자가 불과 46인 뿐이었고,⁵⁵⁾ 이들이 발해왕후의 죽음을 알리면서 光仁天皇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다는 점⁵⁶⁾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 발해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187인이란 적지 않은 인원수의 사절단을 파견한 그 이면에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교역활동은 알 수 없지만 史都蒙이 발해로 돌아갔을 때 일본이 보낸 물품의 내용을 보면 각종 직물 외에 黃金, 水銀, 金漆, 漆, 海石榴油, 水精

50) 上田雄, 앞의 책(2002), 339쪽.

51) 박석순, 앞의 책(2002), 285쪽.

52) 『延喜式』, 大藏省, “凡蕃客來朝者 官人史生各一人率藏部等 向郊勞處供設糧糧.”

53) 東野治之, 「鳥毛立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埴書房, 1977), 305쪽.

54)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8年(777) 夏4月 및 5月條.

55)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7年(776) 12月條, “渤海國遣獻加大夫司賓少令關國男史都蒙等一百八十七人(下略).”

56)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7年 12月條.

念珠, 檳榔扇 등 일본의 특산품으로 짜여져 있었다.⁵⁷⁾ 이는 일본이 唐皇帝에게 토산물로 바치는 데에 쓰이는 귀중한 물품들로서⁵⁸⁾ 발해사 史都蒙의 요청에 따라 증여한 사실이나, 발해가 일본에 가져온 물품은 대개 毛皮類로서 당시 일본의 황족이나 귀족들에게 발해사가 가져온 모피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매년 정월에 개최되는 의식에 곰의 모피를 제공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일본에는 발해의 유물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⁵⁹⁾

이처럼 760년대 중반 이후 7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정세는 큰 사건이나 분쟁 등이 사라지면서 발해와 일본의 관계변화에서처럼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이익 증진에 치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북아정세의 안정과 발해와 일본의 관계 등이 해공왕대 신라의 대일외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공왕대 신라 국내정세와 연계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新羅 政治勢力의 動向과 對日外交

1. 惠恭王의 登極과 金初正의 渡日

764년에는 경덕왕의 뒤를 이어 태자 乾運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해공왕이다. 어린 나이에 등극한 해공왕은 모후인 滿月夫人으로부터 섭정을 받았다.⁶⁰⁾ 이로 인해 그의 권위는 母后와 그 측근세력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었고 貴戚들의 득세도 절정에 달했다.

신라 해공왕대 초반의 귀척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金隱居가 있다. 그는 해공왕 3년(767)에 왕과 왕비의 冊命을 요청하기 위해 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⁶¹⁾ 그 다음해에는 당의 代宗으로부터 歸崇敬이라고 하는 당의 사신을 신라에 파

57)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8年(777) 5月條, “渤海使史都蒙等歸蕃 (中略) 并附絹五十疋 絁五十疋 絲二百紵 綿三百屯 又緣都蒙請 加附黃金小一百兩 水銀大一百兩 金漆一缶 漆一缶 海石榴油一缶 水精念珠四貫 檳榔扇十枚 至宜領之 (下略).”

58) 上田雄, 앞의 책(2002), 343~344쪽.

59) 上田正政(篇), 앞의 책(2005), 59쪽.

60)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卽位年(765)條.

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⁶²⁾ 같은해 10월에 侍中職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비록 해공왕 11년(775)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伏誅를 당하지만⁶³⁾ 그 이전까지 왕의 측근이자 집사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계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다.⁶⁴⁾

해공왕대에 들어와서 신라가 처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도 김은거가 득세 하던 해공왕 5년(769) 11월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신라에서 해공왕의 등극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처럼 신라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가 늦어진 배경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그다지 친밀하지 못했던 사정에 기인한다. 아울러 당시의 신라 국내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해공왕이 재위한 지 2년 무렵에 기이한 자연현상이 자주 나타났다는 『三國史記』의 기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⁶⁵⁾ 해공왕의 등극을 전후로 한 신라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신라에서 왕의 즉위 직후가 아니라 3년에 이르러서야 당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신라정세와 무관하지 않는다.

해공왕 4년에는 大恭·大廉의 난이 일어나면서 33일간 궁궐이 포위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모두 진압되었다.⁶⁶⁾ 해공왕 5년에 이르러 국내정세가 어느 정도 진정을 보이자 신라조정에서는 일본견당사 藤原河清의 부탁을 계기로 新羅使 金初正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⁶⁷⁾ 新羅使 金初正이 187인의 사절단과 導送者 39인을 이끌고 일본의 대마도에 도착했다. 이때 일본조정에서는 大伴宿禰伯麻呂와 津連眞麻呂 등을 보내 入朝의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김초정은 국왕의 명으로 宿衛王子 金隱居의 귀향 편에 일본의 遣唐大使 藤原河清과 學生 朝衡 등이 부탁한 편지와 함께 土毛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⁶⁸⁾ 이어서 일본의 大伴宿

61)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3年條, “秋七月 遣伊濱金隱居入唐貢方物 仍請加冊命 (下略).”

62)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4年條.

63)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1年 夏6月條.

64)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4年 冬10月條.

65)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2年條, “春正月 二日並出 大赦 二月 王親祀神宮 良里公家 牝牛生犢 五脚 一脚向上 康州地陷成池 縱廣五十餘尺 水色青黑 冬十月 天有聲如鼓.”

66)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3年 秋7月 및 同王 4年 秋7月條.

67) 『續日本紀』 稱徳天皇 神護景雲 3年 3月・11月・12月條.

68) 김초정의 일본파견에 대해 濱田耕策은 당의 의지가 개재된 사례로 보았는데, 당의 代宗이 일본의 견당사를 배려하기 위해 唐使 陸斑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陸斑가 신라의 경주에 머무른 채 일본에 가지 않자 대신 신라왕이 김초정에게 명하여 일본견당사의 서신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吉川弘文館, 2002), 383쪽.

彌伯麻呂 등이 신라사에게 土毛라 고쳐 부른 이유를 다시 묻자 김초정이 ‘부수적으로 바치는 것(便以附貢)’이므로 調라 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⁶⁹⁾

이러한 김초정의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신라사절단은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侍中 김은거의 개인적 요청에 의해 단행된 임시사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해공왕 3년(767)에 伊滄 김은거가 唐國에 들어갔다가 귀국한 직후에 일본으로의 사신파견이 단행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⁷⁰⁾ 그런데 이때의 신라사절단을 이끈 김초정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그의 관등이 비교적 낮은 綴滄으로서 大使라는 공식 직함을 띠지 않았고 土毛라 하여 국가간에 증여되는 물품이 아닌 사사로이 증여되는 물품을 보낸 점 등에서 그다지 비중있는 신라사절단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때 渡日한 김초정 이하 신라사절단의 규모는 200여 명 정도였다. 送導者 39인을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신라사절단의 규모는 당시 唐에 머물고 있던 일본사신의 부탁만을 받고 일본에 파견되기에 적지 않은 수다. 이는 아마도 신라조정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견당사를 보낸 와중에서 파생되는 공적 사적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에도 자신들이 허가한 상인들을 포함시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보다 앞선 시점인 768년 10월경에 일본조정에서는 좌우대신에게 大宰의 綿 2만 屯, 大納言 諱와 弓削御淨朝臣清人에게 각각 1만 屯, 從2位 文室真人淨三에게 6천 屯, 中務卿 從3位 文室真人大市 등에게 3천 屯, 正4位下 伊福部女王에게 1천 屯 등 총 7만 1천 屯을 주어 新羅의 交關物을 사도록 허가한 일이 있었다.⁷¹⁾ 이러한 교역내용은 신라측에게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⁷²⁾

69) 土毛는 공물을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 譯註』(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1994), 261쪽. 金恩淑은 신라사가 土毛라 칭한 것에 대해 신라사가 일부러 入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중앙귀족들은 신라사가 가지고 온 물건을 博多에서 사교역으로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일본조정에서는 768년에 자국의 좌우대신 이하가 신라의 교관물, 즉 무역품을 살 수 있도록 태재부에 면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때의 신라사는 태재부에서 교역만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은숙,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1991), 128쪽.

70) 『三國史記』新羅本紀 惠恭王 3年 秋7月條.

71) 『續日本紀』稱徳天皇 神護景雲 2年(768) 10月條.

72) 박남수, 「통일신라 동아시아 교역과 수공업생산: 신라와 일본의 교역을 중심으로」, 『해상왕 정보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일본조정에서 신라사절이 태재부에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지 이들과 교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측에서는 大宰府에서 신라사절단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향연을 베풀 수 있었고 이들 신라사 김초정 일행은 일본견당사의 부탁을 계기로 일본과의 교역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신라사절단은 굳이 入京하지 않아도 大宰府에 머물면서 일본과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⁷³⁾

그러므로 신라측에서는 물품의 증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측에서는 오히려 해공왕대에 처음으로 來日한 신라사절단이 그들 자신의 외교의례절차에 따라 入京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는 김초정이 調라 하지 않고 土毛라 칭하였기 때문에 賓禮로써 대우하지 않겠다는 일본측의 강력한 대응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일본조정은 唐國의 소식과 遣唐使 藤原河清 등의 서찰을 가지고 왔으므로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大宰府에서 향연을 베풀고 신라국왕 및 신라사 등에게 증여물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⁷⁴⁾

결국 해공왕 5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김초정 등은 임시사절로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동북아정세와 더불어 해공왕의 등극 이후 전개된 叛亂 및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주도한 김은거의 立地는 그만큼 신라정계 내에서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김웅의 등장에 따라 점차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서 검토하게 될 공식적인 신라의 첫 대일외교사절단을 주도한 인물이 김웅이었다는 점과 바로 그 다음해에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다.

고 연구회 워크숍(2006), 21쪽.

73) 태재부에는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交關用의 재원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온 외국사절은 入京할 필요없이 태재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방환되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東野治之, 앞의 책(1977), 305쪽.

74) 김초정 이하 신라사절단을 빈례로서 대우하지 않은 일본측의 대신라자세에 대해 신라사 김초정 일행이 일본의 동정을 엿보기 위한 것으로 일본측이 의심했던 데에서 그 연유를 찾는 견해도 있다. 奥村佳紀, 「신라인의 來航에 대하여」, 『장보고관계연구논문선집: 중국·일본편』(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 2002), 11쪽.

2. 金邕의 執政과 金三玄의 渡日

혜공왕대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혜공왕 10년(774)에 이르러서도 소원하였다. 혜공왕 5년의 신라사 김초정 파견 이후 거의 5년만에 新羅使 禮府卿 김삼현이 2백 여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의 대재부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관리 河內守 紀 朝臣廣純 등이 入朝의 이유를 묻기 위해 대재부에 파견되었다. 이때 김삼현이 국왕의 명으로 예전처럼 우호관계를 맺고 서로의 사신왕래를 청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한다.⁷⁵⁾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의 渡日 시점까지도 신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공식사절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사 김삼현 등의 일본파견은 上相인 김웅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⁷⁶⁾ 이는 신라사가 ‘貢調’를 ‘信物’로 개칭한 이유에 대해 묻는 일본 관리에게 김삼현이 일찍이 성덕왕대의 집정자로서 대일외교를 추진했던 김순정의 손자인 김웅을 소개하며 김웅 역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대답한 사실⁷⁷⁾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신라사 김삼현은 일본관리에게 그 자신이 국왕의 명으로 在唐大使 河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되었을 뿐 조를 바치는 사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신라사 김삼현 등이 그 이전 시기의 신라사 김초정 일행 등과 마찬가지로 임시로 파견된 사절단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삼현 일행은 일본조정으로부터 聘問을 말하고 國信物을 칭한 것이 前例에 어긋나다고 하여 入京은 물론이고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방환되고 만다.

이처럼 김삼현이 ‘聘問’을 말하고 ‘信物’이라 칭한 것은 당시 최고의 집정자인 김웅의 입장을 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만일 김웅이 진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라사 김삼현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외교의례를 그대로 수용하여 入京하려 했을 것이다.⁷⁸⁾ 그러나 김삼현은 외교적 수사로 김웅이

75)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5年 3月條

76) 김웅이 당시 上相으로서 兵部는 물론이고 왕실 관련 寺院의 首長이라고 하는 최고위직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혜공왕 7년(771) 제작된 『聖德大王神鐘銘』에 의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 臣 金邕”).

77)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5年 3月條

그의 조부인 김순정이 그랬듯이 가문의 명성을 쫓아서 일본에 供奉하려 했다는 언급만 했을 뿐 일본 자체 내의 외교의례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김삼현의 직무와 관직이 禮部(禮府)에 소속된 卿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禮部의 정확한 직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의례나 외교, 교육 등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⁷⁹⁾ 더구나 卿이란 관직은 차관급으로 장관급인 슴 다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의 관직이나 소속직무로 볼 때 그의 외교적 수사는 신라의 공식입장을 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신라사의 태도는 당시 혜공왕의 측근 인물로서 어린 혜공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김웅의 정치적 입장과의 궤를 같이한다.⁸⁰⁾ 당시 신라의 정국은 어린 왕과 그를 둘러싼 태후 및 일부 외척들의 정국주도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정권에서 밀려나거나 불만을 가진 귀척들이 여러 차례 난을 일으키는 등 왕권을 위협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⁸¹⁾

이에 따라 김웅은 혜공왕을 도와 흐트러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경덕왕대에 주조하려다 왕의 죽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大鍾의 주조도 바로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혜공왕 7년(771)에는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됨으로써 전지전능한 불교의 힘을 빌어 왕권의 위엄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고,⁸²⁾ 동시에 김웅의 정치행위도 자연스럽게 정당화될 수 있었다.⁸³⁾

78) 전덕제는 김웅이 일본과의 외교를 매우 중시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성덕왕대 중반 이후 소원해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던 인물로 보고 있다. 전덕제,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 『韓國史論』, 37(서울대 국사학과, 1997), 13쪽.

79)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일지사, 1993), 33쪽.

80) 김수태는 김웅의 정치적 성격을 반혜공왕과 내지 반전제주의 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수태, 「신라 성덕왕·효성왕대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 『동아연구』, 3(1983), 127~130쪽.

81)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4年 秋7月 및 同王 10年 秋8月條; 『三國遺事』 紀異 惠恭王

82) 李吳榮,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1974), 13쪽; 李文基, 「신라 혜공왕대 五廟制와 改革의 정치적 의미」, 『백산학보』, 52(1999), 823쪽.

83) 신종의 주조작업에는 물론 上相인 김웅이 최고책임자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신종의 명문은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종의 본질로 보아 王者의 元功을 그 위에 새길만 하다는 것이다. 둘째, 성덕왕의 덕이 산하나 일월과 같고 치적이 훌륭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다. 셋째, 경덕왕은 부모의 정을 잊을 수 없어 대중을 주조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넷째, 혜공왕은 경덕왕의 유언과 태후의 뜻을 받아들여 선행을 베풀고 신종을 완성했다는 것이다(『聖德大王神鐘

이 신종의 명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所以 四方隣國 萬里歸賓 唯有欽風之望 未曾飛矢之窺’이라는 구절이다. 이는 성덕왕 시절의 신라가 왕권이 신장되고 국가가 안정됨으로써 사방의 여러 나라가 이념적으로 신라를 흠모하며 전쟁의 기회를 엿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라인의 강한 자부심이나 자신감 등이 묻어나는 표현이다. 물론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시대는 聖德王代이다. 그러나 神鍾을 주조해서 銘文을 새긴 시점이 惠恭王代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 속의 내용은 성덕왕대와 같은 왕권의 신장과 정세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김웅을 비롯한 당대 지배계층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海公왕 10년에 渡日한 김삼현이 자신은 調를 바치는 사신이 아니라 하고 ‘聘問’을 말한다거나 ‘信物’이라 대답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779년경 일본에 온 唐使 孫興進 등이 일본조정에서 증여한 물품을 ‘信物’이라 한 사실⁸⁴⁾처럼 신라 역시 일본의 朝貢國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신라사 김삼현의 언급은 비록 海公왕의 敎를 빗자하기는 했지만 김웅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신라사 김삼현 등이 동시기 발해와 일본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례문제를 놓고 일본과 마찰을 벌이긴 했지만 200여명에 이르는 신라 사절단의 인원수가 말해주듯이 신라조정에서는 在唐日本使臣의 개인적 부탁을 매개로 일본측에게 성의를 보여주고 경제교류를 수행함으로써 왕실재정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신라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대일외교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3. 惠恭王의 親政과 金蘭蓀·金巖의 渡日

774년, 곧 海公왕 10년은 海公왕이 18세가 되던 해로서 母后의 攝政으로부터 벗어나 왕 자신이 親政을 시작하던 무렵이었다.⁸⁵⁾ 또한 그 해 10월에는 金良相이

銘)。

- 84)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 5月條, “唐使孫興進 秦愆期等朝見 上唐朝書 并貢信物 (下略).”
 85) 이문기는 진흥왕과 애장왕이 18세가 되던 해에 친정을 시작했던 사실에 의거하여 어린 신라왕의 친정개시 시점을 18세로 잡고 海公왕의 친정시기도 18세가 되던 해로 보았는데 그는 海公왕이 18세가 되는 시기로 그 다음해인 775년으로 추정한다 바 있으나[이문기, 앞의 논문(1999), 816쪽],

上大等에 올랐던 시점이기도 하였다.⁸⁶⁾ 따라서 海公왕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김양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⁸⁷⁾

五廟制의 개혁과 百官號의復古가 바로 그것의 일환이었다.⁸⁸⁾ 오묘제의 경우, 개혁의 명분은 무열왕과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평정하는 데 큰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廟를 五廟에 포함시켜서 세세토록 ‘不毀之宗’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열왕계 내부의 동요를 무마하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海公왕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세력의 연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추구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에 입각하고 있었으며 海公왕 6년(770)에 일어난 김웅의 모반사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김유신의 자손들에 대한 정치적 포섭이기도 하였다.⁸⁹⁾

이를 반증하는 사례가 海公왕 15년(779)에 단행된 신라사 김난손·김암 등의 일본과견이다.⁹⁰⁾ 이들 신라사절단은 海公왕 10년(774)에 渡日한 신라사 김삼현이 일본조정으로부터 入京을 거부당한 이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파견된 사절이다. 그런데 신라사절단의 일원으로 渡日한 김암은 김유신의 손자인 允中の 庶孫으로서 일찍이 唐에 들어가 宿衛를 한 바가 있었다. 이때 그의 현명함이 당조정에 널리 알려지기도 한 인물이다.⁹¹⁾ 그런 그가 김난손 일행과 함께 사절단의 일원으로 渡日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왕(光仁天皇)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억류시키고자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진다.⁹²⁾

이처럼 김암은 당에서 숙위한 경험때문에 신라의 외교사절로서 일본에 파견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김유신의 후손들을 배려하고자 한 海公왕

774년으로 해야 옳을 것이다.

- 86)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0年 10月條
 87) 김양상은 후에 海公왕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로서 내물왕의 10세손이다. 그는 경덕왕 23년(764)에 시중직을 맡은 뒤 海公왕 10년(774) 9월에 상대등직을 수행하였고 김웅의 뒤를 이어 上相으로서 집정자의 위치에 올랐으며, 海公왕 16년(780)에 일어난 金志貞의 亂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聖德大王神鐘銘』, “檢校使 肅政大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0年條 “秋九月 拜伊滄良相爲上大等”).
 88)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2年 春正月條, 同書 雜志 祭祀條
 89) 이문기, 앞의 논문(1999), 837쪽.
 90)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冬10月條, “勅大宰府新羅使金蘭蓀等 遠涉滄波 賀正貢調 (下略).”
 91) 『三國史記』 列傳 金庚信(下).
 92) 『三國史記』 列傳 金庚信(下), “大曆十四年己未 受命聘日本國 其國王知其賢 欲勒留之 (下略).”

의 정치적 고민도 깔려 있었다. 가령,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列傳에 의하면 김암이 일본에 가기 전인 해공왕 15년(779) 여름 4월에 회오리바람이 뭉쳐 일어나 김유신의 묘와 시조대왕의 능에까지 이르렀는데 티끌과 안개로 캄캄하여 인물을 분간할 수 없었고 능을 지키는 자가 들으니 그 속에서 울고 슬퍼하여 탄식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러자 해공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어 제사드려 사과하고 이어 취선사에 밭 30결을 바치고 명복을 빌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김암의 일본파견은 해공왕과 그의 지지세력들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공왕의 결정 뒤에는 상대 등 김양상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김양상은 해공왕 13년(777)에 상대등으로서 왕에게 시정을 극론한 바가 있던 인물이다.⁹³⁾

그런데 이보다 앞서 신라에서는 同王 11년(775)에 김은거·염상·정문 등의 모반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⁹⁴⁾ 동왕 13년에는 京都에서 지진이 거듭 발생하고 있었다.⁹⁵⁾ 이러한 신라 내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김양상은 이러한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왕의 失政에 대해 왕을 보좌하는 측근이자 집정자로서 왕에게 諫言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⁶⁾ 이에 대해 해공왕 역시 최고통수권자로서 여러 차례의 반란과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왕 11년에 侍中이 된 金順을 왕 13년에 金周元으로 교체했다고 볼 수 있다.⁹⁷⁾ 이때 시중직에 오른 김주원은 무열왕의 후손으로서 해공왕의 측근으로 파악된다.⁹⁸⁾

이러한 신라 내의 정세 속에서 해공왕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93)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3年條 “夏四月 又震 上大等良相上疏 極論時政.”

94)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1年 夏6月 및 秋8月條

95)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3年條, “春三月 京都地震 夏四月 又震 (下略).”

96) 李泳鎬, 「신라 해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집(1990), 350쪽. 이기백은 김양상이 상소해서 시정을 극론한 기록에 대해 양상 일파의 정권 확립 및 건당사 파견의 중지와 관련이 있고 당 대신에 일본과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일조각, 1974), 235쪽. 이문기는 현실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으로서 해공왕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에 대한 김양상의 반기이며 해공왕이 시중을 김순에서 무열왕계인 김주원으로 교체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김양상으로 대표되는 내물왕계 김씨세력들의 이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문기, 앞의 논문(1999), 838쪽.

97)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1年 및 13年條, “三月 以伊滄金順爲侍中”; “冬十月 伊滄周元爲侍中.”

98) 『三國史記』 列傳 金暘, “字翹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滄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滄 皆以世家爲將相 (下略).”

국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해공왕 15년 2월에 일본조정은 下道朝臣長人 등을 遣新羅使에 임명한 바 있다. 일본조정이 이들을 견신라사에 임명한 목적은 그 전 해인 해공왕 14년(778) 11월에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 등이 표류하다가 제주도인 耽羅嶋에 도착하여 섬사람들에게 억류된 바 있었기 때문에⁹⁹⁾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 등을 일본으로 무사히 귀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⁰⁾

그런데 이때 신라에 來朝한 일본사신이 해공왕을 직접 알현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遣新羅使 下道朝臣長의 임무가 표류하던 자국사신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한 실무차원이었다는 점, 그의 직함과 관위가 大宰少監 正6位上으로 大宰少監은 중앙정부의 직함이 아닌 대재부 소속이며 正6位上은 비교적 낮은 관위라는 점¹⁰¹⁾ 등에서 볼 때 이들이 해공왕을 직접 알현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들은 신라의 대외업무기구인 집사부의 담당 관리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접 대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해공왕을 비롯한 신라조정에 보고되었을 것이다. 이때 일본의 견신라사에 대한 배려나 일본으로의 사신파견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의 집정자인 김양상이었을 것이다.¹⁰²⁾

그리하여 일본의 견당사절은 수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 이르러서야 신라조정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¹⁰³⁾ 이때 김난손·김암 등의 신라사절단이 일본의 遣新羅使 下道朝臣長과 동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사 김난손·김암 일행이 大宰府에 도착했을 때 일본조정에서 담당 관리에게 ‘通狀이 있더라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조한 연유를 묻고 表函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통상이 있다’란 말은 바로 일본이 遣唐使 海上三狩

99)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9年(778) 11月條

100)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2月條

101) 일본 遣新羅使 下道朝臣長의 관위가 그 이전부터 통상 신라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일본사의 관위, 5位보다 낮다(東野治之, 『「延喜式」にみえる遣外使節の構成』, 『遣唐使と正倉院』(岩波書店, 1992)). 그런 점에서 당시 신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외교적 냉각이 형성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779년 무렵 일본사신이 신라에 온 목적이 일단 자국 사신의 무사귀환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 같은 그들의 외교업무를 고려한다면 일본조정에서 일부러 낮은 관위의 견신라사를 보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된다.

102) 전덕재, 앞의 논문(1997), 13-14쪽; 平澤加奈子, 앞의 논문(2006), 65쪽.

103)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7月條

의 무사귀국을 위해 遣新羅使 下道朝臣長 등을 파견하여 신라와 사전교섭을 벌인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조한 연유를 묻고 表函을 요구하라’란 말은 일본의 외교관례상 신라사에게 방문목적은 재차 묻은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사절의 귀국시 신라사절이 동행했다고 볼 수 있다.¹⁰⁴⁾

『續日本紀』에서는 김난손과 김암 등 신라사절의 증여물을 ‘調’라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들 신라사는 일본조정에 대해 새해 인사를 하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表函을 휴대하지 않은 채 奏言으로 일관하였다.¹⁰⁵⁾ 이러한 신라사의 대일외교자세는 신라조정이 비록 해공왕이 일본 견당사의 송환을 계기로 大使·副使·大小判官·大通事·學語生 등으로 구성된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긴 했으나 신라의 기존 외교정책인 口頭를 통한 대일외교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¹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일본에 간 신라사가 번번히 入京을 거부당한 것과 달리 이들은 일본의 견당사 海上真人三狩 등을 무사히 귀국시킨 일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賓禮¹⁰⁷⁾에 따라 入京을 허가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¹⁰⁸⁾ 이같은 일본측의 예외적인 조치는 이와 비슷한 시기인 776년에 발해의 史都蒙 등이 入國했을 때 表文을 지참하지 않았으나 향해 도중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당함으로써 겨우 살아남은 발해사절단을 위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入京시켜 극진한 대접까지 행한 발해와의 관계에서 엿보인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에도 일본조정의 입장에서는 表文을 지참하지 않는 신라측의 대일외교자세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780년 2월에 일본천황이 김난손·김암 일행을 응대할 무렵 신라국왕 앞으로 보내는 글을 통해 일본에

104)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冬10月 및 11月條

105)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1年(780) 春正月條, “新羅使獻方物 仍奏曰 新羅國王言 是以謹遣薩浪 金蘭蓀級食金巖等 貢御調兼貢元正 (下略).”

106) 平澤加奈子是 779년경의 신라사파견은 건신라사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신라사절단의 구성이 朝貢使인 大使·副使·大判官·小判官·大通事 및 學語生 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신라가 대일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식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주장한다. 平澤加奈子, 앞의 논문(2006), 56-65쪽.

107) 빈례란 외국사절이 來日하면 京까지 들어와서 접대를 받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즉, 외국사절의 전송, 拜朝, 국서와 신물의 수납, 향연과 물품의 수여, 친서의 전달 등이 그것이다. 田島公, 『日本の律令國家の賓禮』, 『史林』, 68-3(1985); 박석순, 앞의 책(2002), 28쪽.

108)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1年(780) 春正月 및 2月條

오는 신라 사신들이 表를 지참하지 않고 올 경우 入京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¹⁰⁹⁾

IV. 맺음말

지금까지 해공왕대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공왕대에는 新羅使의 일본파견이 모두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것도 일본견당사의 개인적 부탁이 있을 때마다 신라사절단을 파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공왕대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절단은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간에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통상적인 외교사절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신라사의 일본파견과정에서 볼 때, 해공왕의 친정과 김은거, 김웅, 김양상으로 이어지는 정국주도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외교섭은 물론이며 인도적 차원의 대일외교를 전개하였을 뿐 고차세적인 대일외교태도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조난당한 일본견당사의 귀환을 위한 목적에서 겨우 한차례 일본사절을 신라에 파견했을 뿐이다. 이처럼 해공왕대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상대국을 필요로 할 만큼의 절실한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외교상에 있어서 의례문제가 좀 더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정치·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조정이 신라보다는 당시 당과 빈번한 교섭을 벌이며 동북아의 강대세력으로 떠오른 발해와의 우호관계를 이용해 당과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안사의 난 이후 전개된 불안한 동아시아정세가 잇따른 당사 韓朝彩의 발해와 신라입국 이후 동북아에 큰 분쟁없이 안정화 상태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신라와 일본, 발해와의 사이의 외교에도 영향을 주면서 使節團을 통한 公貿易보다는 私貿易이 성행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¹¹⁰⁾ 셋째, 8세기 후반 동북아에서 경제적 목적이 주된

109) 『續日本紀』 光仁天皇 寶龜 11年(780) 2月條

110) 김문경, 「7-9세기 신라인 해외무역활동」, 『한국복식』, 13(1995), 1-2쪽; 강상택, 「8-9세기 신라의 산업구조」, 『장보고연구』, 2(1999), 13쪽; 永正美嘉, 「新羅의 對日香藥貿易」, 서울대학교원 국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2003), 46-49쪽.

관심사가 되면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사절은 入京할 필요 없이 대재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방환되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聖德大王神鍾銘』; 『舊(新)唐書』; 『渤海國志長篇』;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延喜式』.
- 강상택, 「8~9세기 신라의 산업구조」. 『장보고연구』 2, 1999, 1~16쪽.
- 김문경, 『당 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 서울: 일신사, 1986.
- 김문경, 「7~9세기 신라인 해외무역활동」. 『한국복식』 13, 1995, 1~26쪽.
- 金壽泰, 「신라 성덕왕·효성왕대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 『동아연구』 3, 1983, 205~229쪽.
- 金恩國, 「新羅道를 통해 본 渤海와 新羅 關係」. 『白山學報』 52, 1999, 737~760쪽.
- 김은국, 「말해의 대외관계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22, 2003, 271~285쪽.
- 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1991, 103~131쪽.
- 金毓敏, 『東北通史』. 서울: 백산자료원, 1976.
- 구난희, 「8세기 후반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10, 1999, 29~50쪽.
- 박남수, 「통일신라 동아시아 교역과 수공업생산: 신라와 일본의 교역을 중심으로」. 『해상왕 장보고 연구회 워크샵』. 2006, 1~29쪽.
- 박석순,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2.
- 宋基豪,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말해와 신라」. 『한국사시민강좌(5)』. 서울: 일조각, 1989.
- 송기호, 「말해 文王대의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 1993, 55~88쪽.
-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1974.
- 李文基, 「신라 혜공왕대 五廟制와 改革의 정치적 의미」. 『백산학보』 52, 1999, 795~840쪽.
- 이성시(저)/김창석(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서울: 청년사, 1999.
-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서울: 일지사, 1993.
- 李泳鎬, 「신라 혜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집, 1990, 333~360쪽.
- 李鎔賢, 「統一新羅의 傳達體系와 北海道」. 『朝鮮學報』 171, 1999, 43~64쪽.
- 李昊榮,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1~17쪽.
- 永正美嘉, 「新羅의 對日香藥貿易」. 서울대대학원 국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2003.

- 奥村佳紀, 「신라인의 來航에 대하여」. 『장보고관계연구논문선집: 중국·일본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529~560쪽.
- 趙二玉, 『統一新羅의 北方進出研究』. 서울: 서경문화사, 2001.
- 全德在,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 『韓國史論』 37, 서울대 국사학과, 1997, 1~40쪽.
- 최재수, 「장보고에 대한 기록과 장보고의 재당활동과 해상지배권 장악의 배경」. 『장보고연구』 2, 1999, 17~28쪽.
- 한규철, 『말해의 대외관계사』. 서울: 신서원, 1994.
-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1, 1924, 19~43쪽.
- 鈴木靖民, 「金順貞·金邕論: 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 45, 1967, 21~38쪽.
- 井上秀雄, 『新羅使基礎研究』. 東京: 東出版社, 1974.
- 東野治之, 「鳥毛立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1977.
- 東野治之, 『延喜式』にみえる遣外使節の構成. 『遣唐使と正倉院』. 東京: 岩波書店, 1992.
- 日野開三郎, 「安史の亂による唐の東北政策の後退と渤海の小高句麗國占領」.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卷. 東京: 三一書房, 1984, 303~337쪽.
- 田島公, 「日本の律令國家の‘賓禮」. 『史林』 68-3, 1985, 35~86쪽.
-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1.
-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2.
- 上田雄, 『渤海使の研究』. 東京: 明石書店, 2002.
-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2003.
- 赤羽目 匡有, 「8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と渤海との通交關係」. 『古代文化』 56-5, 2004, 30~43쪽.
- 上田正昭(篇), 「東北アジアのなかの渤海の國家と交流」. 『古代日本と渤海』. 東京: 大巧社, 2005, 47~66쪽.
- 平澤加奈子, 「八世紀後半の日羅關係: 寶龜十年新羅使を中心に」. 『白山史學』 42, 2006, 42~73쪽.

